第298回國會 (臨時會) 南北關係發展特別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1年3月11日(金)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현안보고
   가. 통일부 소관
   나. 외교통상부 소관
   다. 국방부 소관

審査된案件

1. 현안보고 ····· 2
   가. 통일부 소관
   나. 외교통상부 소관
   다. 국방부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에 바쁘신데도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1차 회의에 이어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개의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전 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이유는, 남북관계 현안 문제를 시급히 개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현안보고해 주시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뜻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교섭단체 간사 위원의 합의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진술 기회를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김효재 위원님께서 상견례를 하지 못하셨는데,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 첫 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리고 오늘 이 회의는 지금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선 문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학진 위원 제가 남북관계특위를 17대 때 4년 계속했었고, 또 18대 들어서도 전반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우리 관계부처의 장관 세 분이 오늘 회의에 다 참석을 하셨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7대 때는 특위 회의에, 남북관계특위든, 특위가 국회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이 거의 다 참석을 했

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연유인지 18대 들어서 장관들이 특위에는 오질 않아요. 본회의하고 상임위는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위는 무슨 알바처럼 생각을 하는 건지, 부업처럼 생각을 하는 건지 장관들이 거의 오지 않고 차관 보내고, 무슨 실장 보내고 이런 경향이 아주 짙어졌어요.

며칠 전에 독도특위가 열렸는데 그날 관계 장관 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 사람만 다행스럽게도 참석을 하고 나머지 부처는 다 차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도특위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국회 위상까지 들먹이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관들께서 오늘처럼, 더 더군다나 방금 위원장님 말씀 있으신 것처럼 남북관계가 지금 매우 위태롭지요?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회의가 열릴 때 오늘처럼 반드시 참석을 해서 국민들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또 우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주선 문학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정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좀 인식하시고 장관님들이 꼭 좀 참석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1. 현안보고

가. 통일부 소관

나. 외교통상부 소관

다. 국방부 소관

(10시11분)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남북관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통일부장관의 현안보고를 듣고, 계속해서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장관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3개 부처 장관들에게 일괄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인택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 소관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관계로 김성환 장관이 답변과 인사를 위하여 잠시 이석을 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시간에 맞추어서 잠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통일부장관님 보고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남북관계특별위원회가 설치된 후 처음으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최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북한 동향과 최근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호 존중과 호혜적인 남북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변화를 거부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만을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남 강경조치와 도발, 대화공세, 도발의 반복적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게 대응해 왔습니다. 남북 간 현안 문제에 대해서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5·24조치 시행 등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하였습니다.

2페이지,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먼저 내부 동향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3월 10일 현재, 금년 들어 총 30회의 공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3대 세습과 관련하여 공고화 조치가 진행 중인 바 김정은은 10년 9월 이후 총 55회 현지지도를 수행하고, 중국 고위층 접견 시 배석하는 등 공개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례 없이 선군청년 총동원대회를 개최하는 등 체제 결속과 주민에 대한 사상통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외 동향입니다.

멍젠주 공안부장과 장즈쥔 외교부 상무부부장 등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 방북, 전통적인 중·북 친선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6자회담 재개 등 미·북 간 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남 동향입니다.

군사실무회담 결렬 이후 대남 비난을 강화하고 있는바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우리 정부의 대결정책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대북정책 전환 및 남남갈등 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키 리졸브 연습과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서도 단호한 군사적 대응조치, 직접 조준사격 등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주민 송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북한주민 31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연평도 인근에서 표류해 왔습니다.

정부는 북한주민 31명 중 27명은 귀환, 나머지 4명은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고, 지난 3월 3일 적십자 채널을 통해 주민 27명과 선박 송환에 협조해 줄 것을 북한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귀순공작, 반인류적 행위 등을 비난하면서 전원 송환을 요구하고, 전원 송환을 위한 3월 9일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를 제의해 왔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측은 27명의 송환에 필요한 조치를 북한 측에 요구하였으며,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시켜 줄 용의가 있으며,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하자고 3월 9일 수정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31명 전원 송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바 27명에 대한 송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동 문제를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7명은 북한 측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송환하고, 4명에 대해서는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북대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연초부터 전방위 대남 대화공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조평통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무조건적인 당국대화 재개를 주장하는 한편, 북 최고인민회의와 남 국회 간 의원 접촉과 협상을 제기해 왔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서는 천안함 사건은 모략극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이후 '서울 불바다', '직접 조준사격' 등 강도 높은 대남 군사적 위협을 통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북한의 진정성에 기반을 둔 실질적 대화를 지속 추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원칙 있는 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서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선 통일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통상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 즉 북핵 문제, 북한 식량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국제사회의 북한 문제 관련 동향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핵 문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작년 11월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하고 이를 평화적 핵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해서 남북 간 회동을 제안하였습니다만 아직 이에 대한 북한의 공식반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향후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 트랙 기조를 견지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대화를 시작으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의 올바른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은 9·19 공동성명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비엔나에서 개최 중인 IAEA 이사회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10여 개 국가들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이러한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관련국들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 식량 문제 관련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국제식량기구 등 국제기구, 각국 등에 식량 지원을 요청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 식량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치는 없으나 작년 11월 WFP·FAO 북한식량평가보고서 등을 근거로 북한 식량상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 WFP와 FAO·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의 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식량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하여 철저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며, 지원되는 식량이 취약계층에 전달될 수 있는 모니터링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WFP 등의 북한식량평가 합동조사단의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EU 등 주요 공여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동향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북한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속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상황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매년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 신설된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또한 북한인권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모든 것이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상황과 분리하여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08년 이래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0년 유엔총회 결의안 논의 시에는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여 남북이산가족의 상봉규모 확대 및 정례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결의안에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금년 2월 제16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는 북한 인

권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한국민의 인도적 관심 사안인 이산가족 및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입장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국제사회의 북한 문제 관련 동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외교통상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진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국방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입니다.

북한 군사동향 및 대비태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내용은 먼저 최근 북한 군사동향, 북한의 평화공세 및 대남위협에 이어서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지원 및 보장, 우리 군의 대비태세 순입니다.

1쪽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군사동향입니다.

키 리졸브 연습과 관련하여 북한은 지난 2월 9일 실무회담 결렬 이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강도 높게 우리 측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유사하게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면서 전후방 각급 부대별로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PS 전파 교란 등 새로운 방법으로 훈련 방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동계훈련은 계속되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접적지역 작전태세 유지와 훈련성과에 대한 판정검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침투 및 국지도발 위협으로 해빙기를 맞아 해상 침투훈련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임진각 등 심리전 발원지에 대해 조준 격파 사격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관련 활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성능이 향상된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도록 발사시설을 개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북한은 예년 수준의 대남 비난과 훈련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수단과 방법으로 기습도발을 할 가능성을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2쪽입니다.

북한의 평화공세 및 대남위협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금년 들어 신년 공동사설과 연합성명, 조평통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대화공세를 취하였습니다.

지난 1월 20일 북한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회담이 2월 8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피격사건은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연평도 포격 도발도 우리 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회담을 결렬시켰습니다.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실무회담 대표단 공보, 국방위 검열단 진상공개장 등을 통해서 대화 결렬의 책임을 우리 측에게 전가하면서 키 리졸브 훈련을 전후하여 수사적 위협과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하는 등 훈련 방해 책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지원 및 보장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관계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관리구역 내 통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통행은 전년도에 비해 9~13% 정도 증가하였으며, 군은 통행계획 승인절차와 안전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호송과 경계 지원 등 군사적 보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 군사 당국 간 군 통신 채널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송수신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열화상 감시카메라, CCTV, 바리케이트 등 통행 및 경계시설과 감시장비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설치가 완료되면 야간이나 기상 악화 상황에서도 감시 및 관측 기능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북관리구역 내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개성공단 돌발사태, 남북관리구역 우발상황에 대비한 국방부 위기조치 매뉴얼을 보완하고, 도발 유형별 상황조치 숙달훈련을 통해서 이를 주기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입니다.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 및 합동 정찰자산을 통합 운용하여 적 활동을 집중 감시하고, 북한의 구체적 위협 발언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키 리졸브 연습 종료 후에도 강화된 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서북도서 방어태세를 보강하기 위해서 500MD 헬기 등 긴급전력을 보강 중에 있으며 서북도서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요새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테러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 및 대도시 테러에 대비해서 민·관·군·경 통합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임무수행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GPS 전파 교란, DDos 공격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서는 GPS 교란 인지 시 레이더 등 대안장비를 운용하여 피해 최소화 대책을 시행하고, DDos 공격 시 국가사이버위기경보와 연계하여 군 정보작전 방호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가운데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도 더불어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국방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문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학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28일 날 서신을 통해서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통일부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감스럽지요. 국회에서 논의도 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 하나 제안합니다.

우리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우리 특위 내에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요, 남북관계발전특위가 18대 국회에서 출범을 할 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회의의 정기적 개최, 임시국회 때마다 열고 정기국회 때는 두 번, 또는 사안이 있을 때는 긴급현안보고 회의 개최, 결의문 채택, 현장 방문 추진 등을 여야 합의로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게 원활히 되지 못했는데, 오늘 또 하나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우리 특위가 직접 확인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남북 간에 왕래가 지금 중단된 현장, 또 축소된 현장 여기를 우리 특위가 직접 방문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남북관계를 푸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찾아서 현장 방문 일정을 수립해 줄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먼저 순서대로 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선영 위원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의 견해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우리 특위가 전반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국민들 간에 의견 차이가 크고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아주 심각한 대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소위 활동보다는 우리가 통일에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비정치적, 비이념적, 그러면서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것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전반기에도 우리 남북관계특위가 발전을 하지 못하고 회의도 몇 번 열리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요. 하반기에 그래도 우리 18대 국회가 자그마한 일이라도 해낼 수 있으려면 지금 말씀드린 비정치적, 비이념적, 그리고 친인도주의적 그런 활동을 먼저 해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소

위를 구성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 예로서 북한의 녹화사업, 그러니까 북한을 푸르게 만들기 위한 녹화사업 방법론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소위원회, 그다음에 영·유아들에 영양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의약품도 좋고 보다 고단위 영양식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소위원회, 그리고 백두산이 지금 여러 가지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데 백두산에 대한 연구를 함께하고 그쪽에 화산이 폭발할 것을 미리 감지해서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모든 인접 국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한다면 우리 특위가 진정하게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송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영선 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서 남북국회특위를 구성하자는 문학진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비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여야 간사가 제 개인의 견해를 대변을 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가 남북국회특위를 소위로 구성한다고 하면 이 남북특위가 추진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려서 남북국회특위 소위 구성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우리 세 위원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요 문제는 한나라당 이사철 간사님과 민주당 박선숙 간사님, 교섭단체 간사들끼리 합의를 하셔 가지고 견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3개 기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 한 분의 질의 시간은 시간 관계상 답변을 포함해서 4분으로 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질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입니다.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질의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의 김성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경기 양주·동두천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4분밖에 안 되니까.

북한 주민 31명이 와 가지고 4명이 귀순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한 달 정도 조사돼서 나온 결과인데 과거에는 며칠 만에 귀순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특별하게 과거에 비해서 길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적을 때는 좀 빨리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인원이 좀 많이 있을 때는 좀 늦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달이면 31명의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 위원 그리고 지금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돌려보낼 수도 없는 처지인데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 남북이 지금보다 더 경색될 거라고 예견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밝혀 주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4명은 귀순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자유의사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은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성수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곡물 시장에서 말이지요 우리 남북관계가 한 4월이나 5월쯤 완화될 것으로 예견을 해서, 물론 그 곡물을 북한에 주는 데 대해서는 시간이 수송이나 도정이나 한 두세 달씩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북한에 쌀 20만t 지원설이 나돌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WTO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끝나봐야 각국의 지원에 관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김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한 우리 군의 피해 상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 또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의 GPS 교란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한국군은 주요 무기체계는 거의 보안코드가 내장된 신형 GPS를 쓰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고, 구형 또는 상용 GPS도 대안장비인 레이더나 INS, 타칸(TACAN) 등 이러한 보조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경고를 하게 되는 관계상 큰 피해는 없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리고 이번 구제역에 말이에요 우리 군장병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살처분 현장에는 군병력이 거의 투입이 안 됐습니다. 부모들의 반대로 투입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돼지나 소 살처분 현장에도 못 들어가는 군인들 정신력 갖고 어떻게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전쟁에 투입하겠느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지난 12월 중순부로 살처분 현장에도 투입하도록 결심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투입이 됐습니다.

○김성수 위원 투입을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투입이 됐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제 앞으로는 투입할 거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계속 투입할 겁니다.

○김성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외교부장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정몽준 대표 등 몇 분이 우리 핵 보유를 거론했습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김성수 위원 국방부장관님, 북한은 계속 핵을 실험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처럼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입장에서 북한의 핵, 실질적으로 보유했다라고 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군의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 핵실험 또는 핵 보유 여부는 국제사회에서 용납을 안 합니다. 한미 간에 공조해서 핵 확장 억제대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다음은 민주당의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민주당 김동철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소임은 틀립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를 보면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은 없고 전부가 국방부장관입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통일부는 대화와 교류 협력 등 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 지향적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계속해서 대북 대결적 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대화라고 하지만 그것은 전부 북한이 들어줄 수 없는 조건, 전제만 내걸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경우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될 텐데 그동안 긴장이 해이되고 무력하게 대응을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를 얕잡아보게 만들었어요.

다행히 우리 신임 김관진 장관께서 정말 실전형 군대, 행정형 군대를 지양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통일부가 북한이 들어줄 수 없는 조건과 전제를 내걸고, 예를 든다면 비핵화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야기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들어주겠습니까?

이것은 6자가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논의할 사항인데 논의도 하지 않고서 비핵화 조건을 걸어 놓고 정권 초기부터 했기 때문에 이런 들어줄 수 없는 조건과 전제를 내건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대화한다, 해결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 결국 이것은 대화 거부를 위한 명분밖에 안 됐던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권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성과도 없었습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대화 교류 협력 등을 통해서 긴장 완화가 됐습니까? 오히려 긴장은 고조되고 북한의 북핵, 지금은 핵농축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개발까지 제2, 제3의 도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 객관적으로 내다본다고 할 수 있는 영국의 IISS까지 최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은 지금 6·25 이후 최대의 전쟁위기 국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3년의 대북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중국 예속은 심화됐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지하자원, 그리고 나진항 등 모든 것을 중국이 개발·사용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3년은 진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퇴보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권은 대북정책 기조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진실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 천안함·연평도 사건, 또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지만 이것만 주장하면서 아무런 진전도 없는 상태로 만들지 말고 병행해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인도적 지원, 교류 협력 이런 대화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들을 병행해 나갈 때 오히려 북한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유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두 분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의 비핵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북한이 들어주겠느냐, 또 이것은 6자회담에서 할 일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먼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서 북한도 비핵화를 하겠다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출발이 남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북한이 거부하고, 핵개발을 지금 죽 진행시켜 온 게 지난 거의 20년의 일입니다. 또 6자회담에서도 북한이 9·19공동성명 등을 통해서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여러 번 선언하고 또 번복한 것이 지금 소위 비핵화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 문제는 우리 정부가, 특히 우리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은 저희들은 정당하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북 간에도 이슈가 되지만, 물론 6자회담의 이슈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북 및 다자, 6자에서 동시에 추구해 나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동철 위원 장관님,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이 점만 답변을 해 주세요.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서 다양한 대화를 병행해서 갈 것인지, 그럴 의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두 분 장관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 대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부가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있고 앞으로 남북관계도 또 대화를 통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통일부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하고 당연히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북한이 진정하게 모든 문제를 남과 북 사이에서 논의하겠다는 자세만 있다면 무슨 문제든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문제는 남쪽하고 얘기를 하고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미국하고 얘기하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남과 북이 일단 논의해서 해결하겠다는 북한의 자세가 확인이 된다면 언제든지 대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박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님, 정부합동조사단이 언제 상하이로 떠나나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상하이는 일요일 날 떠날 예정입니다.

○박선영 위원 일요일 날 떠나서 뭘 조사하게 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동안에 언론에서 제기됐던 여러 문제를 포함해서 문서 유출이 있었는지, 비자 발급에 부정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박선영 위원 지금 정부합동조사단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비자 발급에 비리가 있었는지 하고 총영사관의 보안관리 실태가 제대로 됐는지를 집중 점검을 하게 될 그런 방침인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의 정보가 유출이 됐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됐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정보합동조사단이 강제수사권도 없으면서 중국에서 달가워하지도 않을 그런 행동을 가서 한다는 게 이게 외교적으로 바람직하겠습니까?

직무감찰을 정식으로 감사원에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여러 가지 루머를 잠재울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다 마이크가 도중에 끊어져서 시간이 자꾸 갑니다마는 한중 관계가 지금 날로 악화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구시보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도 한국은 이런 식으로 간첩 사건을 조작했었다, 이런 정말 모욕적인 기사, 논평까지 싣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상하이 사건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한중 관계는 훨씬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오히려 잘 슬기롭게 넘기면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외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감찰을 반드시 외교부가 받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언론에서도 니가타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대사관에서도 보면 외교관이 내부 고발했다가 오히려 핍박받고 사표 내고 그 공무원이 공금의 유용과 횡령 관련해서 재판까지 받아야 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 차제에 외교부가 이런 모든 불미스러운 것들을 털고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고 길을 찾아 가셔야지 이렇게 지금 중국하고 외교 마찰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불편한 관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덮기에만 급급한 상황을 계속 가져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답변해도 됩니까?

○박선영 위원 조금 이따 답변 주시고요, 한꺼번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서 상원에서는 외교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촉구하고 있고 미국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원에서는 어제 북한 청문회 열렸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면서 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미 대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상하 양원이 외교문제에 관한 한은 이견을 거의 보이지 안 해 왔던 그런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하고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하고의 관계가 지금 잘되고 있는지, 대화채널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하원에서 북한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이 또 다시 제기가 됐는데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먼저 상해 건, 저희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진상이 확실해져야 그다음 단계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유출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엇이 유출이 됐는지 알아야 유출 경로가 어떻고 그것이 과연 비밀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정이 되면 필요한 부분은 형사고발 조치도 할 것이고요.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 감사 나갈 때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 합동조사팀을 보내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외교부에서 그 사이의, 지난 몇 년 동안 가금씩의 그런 비리사건은 전부 저희 내부적으로 처리해서 발견이 되는 대로 인사조치를 하면서 엄중하게 조치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외교부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을 털기 위해서 지금 전 재외공관에 대한 복무기강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불미스러운 조치가 있으면 확실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영 위원 덩 여인에 대한 수사 협조는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덩 여인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한 후에 뭘 그 여자가 가지고 갔는지 또 무슨 비밀이 새나가서 그 여자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결정할 것입니다.

○박선영 위원 핵실험에 대해서 두 장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핵실험에 대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징후는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남북관계발전특위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관련된, 직접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재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효재 위원 한나라당 김효재입니다.

김성환 장관님, 아까 남북대화의 형식과 관련해서 북한이 우리 한국과는 경제문제를, 미국과는 정치·군사 문제를 논의하려는 그런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효재 위원 그런 태도가 지금 정부의 입장인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효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1월 20일 날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 우리 김관진 장관에게 군사고위급회담을 제의했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효재 위원 그리고 그 어간(於間) 해서 미국의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핵문제를 논의하자라는 회담 제의를 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문제는……

○김효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핵문제와 관련된 회담을 제의하면서 '핵은 우리와 논의하자, 이대로 놔두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주장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효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그런 태도에서 보면 우리와는 군사고위급회담을 통해서 경제적인 실익을 취하고 그리고 미국과는 핵과 관련된 회담을 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그런 전략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다고 봅니다.

○김효재 위원 그렇다고 보여지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국방부장관에게 온 군사고위급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시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난번에 실무회담이 한 차례 열렸습니다.

○김효재 위원 그렇지요? 그랬다가 결국은 그것은 북한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그만두게는 됐지만 만약에 북한에서 박차고 나가지 않았다면 그 회담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미국과의 물밑 접촉이 이루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물밑 접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북한 측에서는 늘 미국과 얘기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효재 위원 늘 그런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 그리고 커다란 틀에서 우리가, 대통령께서 우리는 언제나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근래에 일어난 일부터 따져보면 금강산 박왕자 씨 피살사건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행위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보면 북한의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완전한 무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김효재 위원 그렇지요? 한반도 비핵화란 남북 간의 공동선언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그 비핵화 6개 항 중에 북한이 지키고 있는 게 단 한 항이라도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없습니다.

○김효재 위원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김효재 위원 만약에 근래에 일어난 이런 두세 가지 일에 관해서 북한이 '좋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라고 하면 대화가 재개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이미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효재 위원 그렇다면 남북 간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북한의 핵무장에 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도 꺼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남북대화에 들어가서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해 주는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래서 저희들이 남북

간에 비핵화에 대한 회동을 하자고 별도로 지금 제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효재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북한이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게, 사과할게' 그러면 곧바로 국내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 이제 남북 간에 모든 문제가 풀렸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남북대화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핵문제는 계속 남아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김효재 위원 정부는 그 점을 지금부터 명확하게 밝혀 두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함 문제든 연평도 포격의 문제든 박왕자 씨의 문제든 그것은 지나가는 도발의 문제인 것이고 그 가장 기본 베이스에는 북한의 핵무장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늘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효재 위원 어떤 형식적인, 형식이나 아니면 바깥의 당의정(糖衣錠)을 걷어내 가지고 본질을 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희들 다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다음은 김재윤 위원 순서입니다마는 신학용 위원님하고 질의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신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학용 위원 안녕하세요? 신학용 위원입니다.

요새 고생 많으시지요?

우선 우리 국방부장관님께,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여론 분열된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키게 했다 이런 동영상을 국방부 홍보영상자료로 만들었다는데 확실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학용 위원 보고를 못 받았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학용 위원 좀 보고 받으시고요,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아, 국민들이 지금 70%는 맞다, 북한이 했다, 30%는 아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이 조사 결과가 과연 믿을 만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70%가 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마치 이것 때문에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키게 해 가지고…… 국론을 자꾸 분열시키는 이런 자료를 국방부가 홍보자료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자꾸 정치적인 사건에 끼어들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직 보고 못 받으셨다니까 좀 조사해 보시기 바라고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신학용 위원 지금 남북관계를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한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보자 하는 것인데 아까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중국도 그렇고 세계가 지금 관심 갖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냐 그겁니다. 우리 정부도 그거 맞지요,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신학용 위원 예, 그러면 비핵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목적을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인데 '야, 비핵화 포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대화에 나서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우리가 남북통일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남북대화 경색 국면을 비핵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근이나 채찍을 주면서 대화에 임하고 거기에서 주고받고 하면서 비핵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기본 수순인데 비핵화 포기하면 그때 엄청난 선물 주겠다,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허송세월 3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비핵화 문제는 지난 이삼년 동안에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용 위원 아, 물론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나온 문제고요. 그 안에서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남북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출발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되고요. 하겠다라고 이미 여러 번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나간 것 관련해서……

○신학용 위원 우리 통일부장관님 말씀 들으면 만날 똑같습니다. 제가 대정부질문에서도 얘기드렸지만 그렇게 해서는 복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떻든 간에 비핵 개방 3000에 대한 전제조건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대화가 안 될 겁니다. 우리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고 싶고요.

말이 나온 김에 외교통상부, 정말 나름대로 저는 참여정부 때도 외교공관의 장을 꼭 외교부 직원이 아니더라도 전문가 또 KOTRA 직원처럼 오랫동안 외교 관계에 직접 상무 관계자로서 참석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번에 홍콩 총영사, 뭡니까? 뭐가 전문가입니까, 그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상하이……

○신학용 위원 아, 상하이 총영사…… 뭐가 전문가예요?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해 놓고, 그것을 음모론이니 정보기관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다는 등 이런 가당치 않은, 그러니까 기본 자격이 없어요. 공무원의 기본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한 죄는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통 음모론으로 이렇게 전가시키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옛날에 그러셨지요? 답변이, 낙하산 인사를 통한 정치인의 재외공관 부임이 아주 적절하고 잘한다고 그랬다면서요,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누가요?

○신학용 위원 우리 장관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낙하산이 잘됐다라고 대답한 적 없는데요……

○신학용 위원 장관은 '공관 인사에 대해 파견국가에 적합한 인물이라면 정치인이라도 임명이 가능하며' 그렇게 주장하셨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신학용 위원 그런데 이번의 상하이 총영사가 그런 인물이에요? 지금 하는 꼴을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학용 위원 그런 실세가 가니까 밑의 국정원에서 파견된 부총영사도 말을 못 해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보내 가지고 밑에서 견제도 못 하게 해 놓고, 그 보고 언제 했냐고 했더니 무서워 가지고요, 작년 10월에 했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신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만 질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신학용 위원 중국이랑 잘 돼야 되니까……

○박선영 위원 중국하고 잘 돼야 하니까 하여튼 남북관계이지요.

○문학진 위원 다 남북관계하고 관계있어요.

○위원장 박주선 다음은 존경하는 신지호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신지호 위원 남북관계 관련된 발언만 하겠습니다.

김관진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3차 핵실험을 북한이 한다면 핵이 플루토늄 시설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작년 11월에 미국 전문가를 불러다 공개한 농축 우라늄 시설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이 플루토늄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파악이 되고 있고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서 3차 핵실험 시에 무엇을 사용할 것이다 하고 예측하는 것은 지금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신지호 위원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플루토늄은 두 차례에 걸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나름대로 협상카드로 써먹었다, 따라서 뭔가 새로운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고농축 우라늄 핵폭탄, 핵실험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신지호 위원 그러면 UEP 방식의 핵실험은 사전에 그것을 포착하고 핵실험 직후에 핵실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플루토늄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핵실험 단계에 있어서 한미 연합에 의해서 감시 정찰을 분명히 할 것……

○신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소형이기 때문에 추적하고 발견해 내기가 플루토늄보다는 더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소형화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지호 위원 그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까 장관님 업무보고 중에서 '새로운 수단과 방식으로 기습 도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거기에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네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지호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요, '남북 군사당국 간 군통신 채널을 통해 주요 현안을 송수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송수신 내용에는 '회담제의, 해상사격훈련, 민간단체 전단 살포, 해상 표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 전단 살포하는 것도 북한 군사당국과 송수신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측에서 항의할 적에 이렇게 합니다.

○신지호 위원 아, 북측에서……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신지호 위원 우리 민간단체……

○국방부장관 김관진 항의전문을 통신채널을 통해서 해 왔습니다.

○신지호 위원 보내면 보낸 것이니까 접수는 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기 설치된 통신채널을 자기네들도 남측에게 전문을 보낼 때 사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신지호 위원 그다음에 김성환 장관님, 오늘 아침 모 일간지 1면 톱기사가 미국에서 탈북고아들을 입양할 수 있는 법안이 작년, 재작년 연속해서 계속 발의가 되었고 미국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은커녕 기본적인 북한인권법안이 지금 외통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지 1년이 되었는데 법사위에서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신지호 위원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와서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팎의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외교적으로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미국·일본에도 다 있는 북한인권법도 제정이 안 되어 있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탈북고아를 위한 입양 이것은 아직 언감생심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방국의 지적이 있다든가 또는 외교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우방국이 우리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지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인권법이 빨리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지호 위원 그리고 현 장관님, 간단한 것……

질의보다도요, 햇볕정책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갑과 을이 바뀐 비정상적 관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퍼주기, 끌려다니기…… 그것이 이제 비로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정상적인 관계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마찰음은 일종의 남북관계 발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상적 발전을 위한 성장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철학과 원칙을 전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송영선 위원 외통부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송영선 위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거나 무효화하자라고 대통령께 제안할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저는 그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렇다면 아까 북한은 경제적 이

득 있는 것은 남쪽하고 이야기하고 핵문제는 미국과 이야기하는데 그 태도를 고쳐야 된다, 말만 하고 있으면 북한이 태도 고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북한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까지 같이 한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송영선 위원 해도 안 고치지요?

국방부장관님, 한미 간 핵 확장 억제에 의해서 대응한다…… 확장 억제가 뭡니까? 이 단어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핵우산을 이야기합니다.

○송영선 위원 우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핵우산 보장해 주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

○송영선 위원 일일이 다 나열을 못 하시면 제가 차라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NATO, 핵우산 확장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 5조에 의해서 자동개입입니다.

일본, 자동개입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유사 시 합동군 방식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자동개입이나 같습니다.

한국, 자동개입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송영선 위원 아닙니다. 대단히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한국은…… 근거가 뭐지요? 핵우산 근거가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 문제는……

○송영선 위원 아니, 이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근거하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3조에 근거하는데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자국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이 문제는 지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다는 것을 장관님께서 정확하게 짚지 못했는데, 이 질의는 외통부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자국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라는 판단을 할 때, 일단 판단이 될 때에 핵우산 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요? 미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 그때……

○송영선 위원 아니, 의회 동의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송영선 위원 미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핵우산을 펼 수가 없습니다. 예?

핵 억제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때에 억제력이지 북한이, 원래 핵이라는 것은 전투력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제하기 위해서 있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위협을 전혀 의식하지 않거나 의식을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진짜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이것이 억제력이 되고 있습니까? 억제력이 안 되고 있지요? 억제력 안 되고 있지요,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희는 미국의 핵우산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영선 위원 아니, 단순논리로 억제력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억제력이라는 상황은 이런 것인데, 상대방이 계속 핵을 쓰겠다고 하면 억제력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맞습니까?

억제력이 안 되고 있지요. 안 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이 핵우산을 갖고 핵우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에 불구하고도 계속 지금 핵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동개입도 아니고 핵우산에 의한다, 핵 확장 억제에 대해서 한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핵우산 약속을 천명한 것을 문서로 명기해 달라고 외통부가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문제는 미국은……

○송영선 위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이미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 혼자되어 있다고 하는데 북한은 계속 핵위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억제력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적이 있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핵우산 약속 천명을 문서로 받아놓은 적이 있는가, 아니면 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라도 있느냐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미국은 이미 확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어디 있습니까? 문서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78년 이후에 SCM에서 계속 그렇게 확약을,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한국에서 뭐 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핵안보정상회의……

○송영선 위원 예,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NPT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송영선 위원 핵 확산 억제만 하지 북한 핵이 우리에게 더 위협이 안 되도록 핵우산을 NATO와 같은 자동개입으로 하도록 문서를 받아놓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핵우산 매뉴얼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하고 의견을 교환해 본 적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논의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언제부터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국방부에서 핵확장억제위원회를 통해서 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15년에……

이 질문의 끝을 내겠습니다. 2015년에 작전권 이양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전까지, 세 분 장관님 다 똑같습니다.

대화로 해결한다, 핵 확장 억제해야 한다…… 물론 다 터부입니다. 핵 문제 얘기하는 것을 터부라고 전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터부로 봐야 되지요?

원천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알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홍준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安鴻俊 委員 마산 출신 안홍준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남북교류도 열린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역 중단 같은 경제적 제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의약품과 같은 인도적 차원의 교류까지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의약품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대상이 북한의 영유아라든지 임산부, 취약계층 이런 데 대한 우리 민간 지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鴻俊 委員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남북협력사업 및 북한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 노무현 정부하에서는 많게는 1년에 58억 원, 적게는 36억 원의 의약품과 의료장비 등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현 정부에서는 2009년 신종플루 치료제 103억 원이 지원된 것을 제외하고는 출범 초기인 2008년에는 13억 원, 지난해에는 14억 원으로 지난 정부보다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인도적인 차원의 의약품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보다 이렇게 의약품 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노무현 정부하고 지금하고 단순비교 하는 것은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당연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천안함 사태도 있었고 또 연평도 포격 도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순비교는 힘듭니다마는 그러나 작년에도 저희가 또 말라리아에 대한 약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하여간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安鴻俊 委員 만약 북한 김정일 정권이 붕괴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통일이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중공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친중공 정권이 집단지도체제로, 왜냐하면 자기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기득권들이 동독·서독 통일에서도 그런 처벌당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최악의 경우는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어떻게 북한을 점령할 가능

성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김정일 정권이 붕괴됐을 때 통일이 될 수 있는 길은 북한주민의 민심을 사야 된다고 봅니다.

민심을 사야 북한주민,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듯이 이렇게 해서 남한으로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생필품 같은 의약품이나 기본적인 이런 물품들이 한 90%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도 남한이 잘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유사시에 남한으로의 통일은 사실 쉽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필품 또 의약품, 심지어 수년전에는 함경도에서 파라티푸스가 발생을 해서 많은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법륜스님한테 저는 조찬모임을 여러 번 한 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양을 벗어나면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항생제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남북교류 차원에서, 또 남북발전특위까지 구성이 되었으니까, 위원장님한테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합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께서 남북관계특위를 17대부터 수년간 해도 별 실적이 없다 하셨는데, 우리가 실적이 가능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저는 의약품, 여기에서 소위라도 구성을 해서 의약품하고 아니면 나무심기, 심지어 6·15 선언 남측 본부에서 사과나무 한 그루 5000원 이거 심기를 하자고 경협 쪽이 저한테 고문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처음에 제가 수락을 했다가 나중에 뒤에 양해를 구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실현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특위에서 의약품을 지원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위 아니면 나무심기 하는, 사과나무, 유실수 하는 소위라든지 그런 몇 가지 가능한 소위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위원장님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존경하는 안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문제는 박선영 위원님 송영선 위원님 또 문학진 위원님이 말씀이 계셔서 양당 간사끼리 합의를 좀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安鴻俊 委員 장관님이 의약품이라든가 나무심기 지원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한번 물어보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는 저희 정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크게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북관계라고 하는 게 또 아주 세세한 부분에 또 실무적인 차원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서 전체적으로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安鴻俊 委員 그렇다면 이 특위가 필요 없습니다. 특위에서 뭘 하겠습니까? 장관께서 저런 생각을 가지시면……

○위원장 박주선 그것은 지금 장관께서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 국회 특위에서 또 결정이 되고 또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거나 법을 또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문학진 위원 통일부장관, 남북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그런 접촉은 없습니다.

○문학진 위원 없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문학진 위원 얼마 전에 어디 언론에서 썼던데, 비밀리에 몇 차례 접촉했다고.

언제 누가 어디서 몇 차례 접촉을 했어요?

외교통상부장관이 답변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문학진 위원 아는 바가 없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문학진 위원 아는 바가 없는 겁니까, 어디선가 지금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언론보도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모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문학진 위원 이명박 정권 끝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문학진 위원 통일부장관, 어떻게 보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언론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서 이것저것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그런 진행 상황은 없다고……

○문학진 위원 아니요, 성사 가능성.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성사 가능성을 지금 예단해서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문학진 위원 말하기 어렵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문학진 위원 통일부장관, 남북국회회담 반대한 이유가 뭐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들이 국회에서 하는 일을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하실 일이고요, 다만 지난번에 북쪽에서 그것을 보낸 기관이 중요합니다.

그게 처음에 어디서 저쪽에서 발표했느냐 하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라는 데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100% 통전 차원에서……

○문학진 위원 저쪽에서 보낸 주체가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이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위원 김정은 세습체제가 안착할 것으로 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미래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문학진 위원 통일부장관 답변이 계속……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물으면 좀 더 아시는 분이 좀 가르쳐 주고 그러셔야지.

김정은이 중국에 언제 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문학진 위원 그것도 모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위원 외교부장관, 묻습니다.

아마추어 총영사가 희대의 스캔들, 이게 참 낯뜨거운 일을 벌였는데, 이 사람이, 김정기 전 총영사가 상하이 스캔들 해명하는 과정에서 탈북자, 국군포로 송환과 관련한 사안들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문학진 위원 이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탈북자, 국군포로 송환 작업이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하여튼 그 언급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사안을 별 생각 없이, 이게 그러니까 문외한이고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은 거지요.

이렇게 발설을 해서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중국과는 문제가 없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썩 지금 원활치가 못해요, 미국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몰상식에 가까운 이런 사람을 중요한 데 총영사로 보내 가지고 이런 일이 빚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 점은……

○문학진 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결과적으로 잘된 인사는 아닙니다.

○문학진 위원 다음에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통일부장관!

미국이 지금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올 4~5월쯤에 대북 식량지원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남아도는 쌀이 149만t이에요, 이 중에 재고물량이. 적정 재고량이 70만t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남아돌지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이거 적극 검토할 생각 없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현재로서는 대량의 식량지원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학진 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

국방부는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고 계시지요?

제가 물은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런데 통일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국방부장관 답변하시고 통일부장관 답변 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대북 심리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공식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진 위원 답변 못 하시겠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사항이 공개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문학진 위원 아니, 지금 전단지 살포하는 것 다 보도됐고 알 사람 다 아는데 그런데 뭘 답변을 못 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문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국방부가 하는 것을 지금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사실도 저희는 공식적으로 시인한 적 없습니다.

○문학진 위원 아니, 실제로 하고 있는데, 시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생필품, 의약품 이런 것 같이 매달아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뭘 말씀을 못 하겠다는지 이해를 할 수 없네요.

통일부장관,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통일부 입장이 뭐예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우리 국방부가 공식, 지금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확인한 내용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민간이 지금 살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5·24 조치 이전에는 민간 살포에 대해서도 자제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노력을 저희 통일부 차원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5·24 조치 이후에는 그런 노력을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또 법적으로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북한이 천안함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까지 정부가 나서서 자제하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문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철 위원 외교부장관님, 남북대화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름이 남북관계발전특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이사철 위원 남북관계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사철 위원 남북대화에 대한 기본 입장을 아까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언급하면서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 북한에다 대화를 하자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자, 우리 비핵화든 뭐든 하여튼 논의하려고 대화를 합시다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했습니다. 비핵화도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고 또 남북 간에 연평도, 천안함 사건도 얘기하자고 제의해서 그 부분은 한 번 실무회담이 있었다 결렬됐습니다마는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사철 위원 그러면 특정 이슈를 대지 말고 우리 그저 우선 만나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문제, 비핵화든 연평도 사건이든 이런 것을 논의하자 이런 식의 대화를 제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특정 의제를 놓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조금 주체가 불분명하니까요.

○이사철 위원 아니, 우선 준비회담이라도 열어서 해야 할 텐데, 지금 준비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대화를 지금 북한이 꺼려하는 문제를 자꾸 하니까,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또 우리가 그 문제를 따지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한데 자꾸 먼저 대화 의제를 갖고 문제가 되니까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뭐 이거 두 분 장관님 계신 데서 제가 대답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실무회담에서도, 실무회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번 본회담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제 협의를 했는데 북한이 그냥 중간에 의제 협의를 하다가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한이 다시 와서 의제부터 다시 협의하자, 그 자리에서 무슨 사과해라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철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들 하여튼 국회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만큼 장관님들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북한 주민 31명이 지금 NLL 넘어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이사철 위원 우리가 붙들어 온 겁니까, 아니면 표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표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철 위원 그러면 우리 배들이 북한에 잘못 넘어가서 북한에게 억류 또는 보호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다 돌려보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이사철 위원 북한도 지금 다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이사철 위원 그런데 4명이 지금 남아서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4명의 의사를 국민들 또는 언론이나 아니면 북한 측에다 확인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넘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경로로 넘어왔는지 여러 가지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4명이 귀순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 귀순의사를 밝힌 그 네 분에 대해서 개인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발표를 한 것이고요.

○이사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명에 대해서 북한은 가족들을 만나게 하자 이렇게 제의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니까 그것은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대질심문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사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귀순의사를 명백히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뭡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첫째로서 저희 주권 사항이 되고요. 우리가 어떤 귀순이나 또 예를 들어서 제3국에서 무슨 망명을 할 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하는 국가의 주권 사항에 해당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귀순자들의 인권에 침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해서 그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게 말하자면 감정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은 전적으로 전례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도 물론 그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사철 위원 장관님, 그러면 우리 어부들이 잘못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에 갔든가 아니면 납치됐든가 했을 때 그중에 몇 명이 북한에 잔류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잔류의사를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외교·통일 관계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아서 너무 민감한 것을 묻는지는 모

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철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러니까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도 확인할 수 없었으니까 너희들한테 그 4명도 확인을 안 해 주겠다는 이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자유의사를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철 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보나 얼마든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자유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북한이 동의한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철 위원 방법을 논의하자?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이사철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남북관계, 남북대화에 방해가 되는 빌미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기 위원 외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 식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겨울이 추웠지 않습니까? 추워서 한파로 인해서 가을에 파종한 보리와 밀이 거의 60~70% 정도 얼어죽었다, 지금 남한에는 구제역 때문에 소와 돼지가 한 34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을 당했는데 북한은 피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피해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북한이 FAO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일부는 가축도 살처분되었다고 보여지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이인기 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는 농기계가 없으니까 소가 일도 많이 하는데 소가 그런 구제역·한파로 인해서 밭에 일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비료도 작년 같은 기간의 사용량보다 한 1% 정도밖에 못 쓴다, 비료를 못 쓰면 농작물이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봄 지나고 나면 금년에 특히 이 식량이 과거와 달리 구제역 그리고 한파, 비료를 못 쓰는 문제로 인해서 대폭 줄어들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북한에 식량이 부족한 것은 만성적이기 때문에 늘 있는 일입니다마는 실제로 어느 정도 더 상황이 악화되느냐 하는 것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WFP하고 FAO, UNICEF 셋이 공동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각 지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이달 말까지는 보고서를 낼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좀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인기 위원 조금 전에 장관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북한인권법은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기 위원 그렇게 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이인기 위원 그리고 지금 탈북자 문제 때문에, 탈북고아가 파악이 됩니까? 탈북고아라는 개념이……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안 되고 대개 추정치로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그러면 이 탈북고아는 북한에서 탈북한 그 고아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3국에서 출생한 아동들이 많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부분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부모랑 같이 나왔다가 부모랑 떨어지게 되든지 이런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기 위원 그래서 이 탈북고아들은 북한도 그렇고 제3국에서도 그렇고 아무도 돌보지를 않을 텐데 정부의 입장은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희들은 돌볼 수 있으면 저희들이 돌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기 위원 여기에 따뜻한 마음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러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답이 잘 안 나올 텐데요, 민간인들이 전단을 올리는 것은 이미 언론 신문에 보도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그 장소를 변경해야 된다, 그리고 설사 하더라도 그것을 비공개로 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가지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민간단체에서 살포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가급적 적절한 장소에서, 맞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인기 위원 그렇게 원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경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이용경 위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알기에 9일 날 당정회의에서 전자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반격을 할 수가 있겠지만 민간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용경 위원 그 민간이라는 게 북한 민간입니까, 한측의 민간이에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우리 한측입니다.

○이용경 위원 그러면 북한에서 전자전 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자전이 아니라 GPS 교란장치……

○이용경 위원 GPS가 전자전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자전의 일부입니다.

○이용경 위원 아니, 장관님, 말 그렇게 바꾸지 마시고 GPS도 전자전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자전의 일부입니다.

○이용경 위원 글쎄 말이지요, GPS 전자……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자전의 일부입니다.

○이용경 위원 제 말 잘못됐습니까? GPS도 전자전이라는데 그것을 굳이 전자전의 일부라고 얘기하는 의도는 뭐예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용경 위원 그러면 GPS 교란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GPS 교란에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용경 위원 GPS에 대한 교란에 대해서는 다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적 장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인데……

○이용경 위원 제 말은 전자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용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하면 전자전이나 전파를 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방향성을 넣을 수가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이용경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방향성을 가미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용경 위원 아무튼 이것은 좀더 분명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천안함이나 연평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갈라놓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투명과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대통령도 국민이 하나여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용경 위원 그런데 국민이 하나 되지 못하는 책임은 야당의 책임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않습니다.

○이용경 위원 그러면 통일부장관 말씀해 보세요.

이러한 데서 의견의 일치를 못 보는 것은 순전히 야당의 책임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저희 정부가 그것이 야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경 위원 누가 뭐 정부가 야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제 말은 국민을 갈라놓았다, 의견이 다르

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는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뭐, 하여간……

○이용경 위원 이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야당 위원한테 지우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정자로서?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하여간 큰 틀에서……

○이용경 위원 큰 틀?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이용경 위원 아니, 큰 틀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정권의 책임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이용경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인 세컨드 게싱(in second guessing)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이 안 되면 꾸준히 노력을 해야지.

자, 이것이 의견의 일치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에 뭘 하려면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하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권을 내놔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정부가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경 위원 그리고 그 말에 똑같은 것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사철 위원님이 북한 표류인들에 대한 송환에 대해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2월 5일 날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사표현이 3월 3일 날 적십자를 통해서 북한에 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귀순의사가 확인된 게 며칠날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것은 합심해서 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며칠날……

○이용경 위원 아니, 날짜가 확인된 게 있어요, 없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경 위원 못한다 이거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이용경 위원 그러면 아까 이사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북한에 우리 남한인이 북쪽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가게 되면 돌려 달라는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면 결론을 빨리 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이용경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한 달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것은 저는 불신을 키웠다고 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인원이 31명이나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을 줄 압니다. 다만……

○이용경 위원 장관님, 내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이사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역지사지로 놓고 보면 빨리 결정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관계에 불신을 키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존경하는 이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우리 국회에 국방위도 있고 외통위도 있고 이것과 남북문제와 관련된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국회에 굳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게 명칭이 관계개선특위라고 한다고 한다면 보고도 관계 개선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해 주고 그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다면 비공개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관계개선특위 그 성격에 맞게 위원회가 진행되고 또 정부 부처에서도 그것과 관련되게 맞추어서 보고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특위 존재 이유에 대한 진지한 그런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진행이.

통일부장관, 관계 개선이 지금 필요할 만큼 악

화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경색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현 위원 경색되어 있는 것을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조차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자, 한마디로 함께 고민·고뇌 그쪽으로 맞춰서 지금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이정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특위에 왔을 적에 그런 부분들을 요청해서 비공개라도 해 가지고 그런 방안들을 좀 국회에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일반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우선 정상회담을 많이 얘기합니다.

금년 들어와서 대통령께서도 신년 좌담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었고 총리님도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3·1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부 관계자나 통일부장관이 계속해서 이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북정상회담을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추진한다고 한다면 아까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남북정상이 만나면 남북관계가 상당히 개선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을 지금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또 그런 정황이 있느냐 이게 지금 언론에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지금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장관님, 없다는 것을 굉장히 자신 있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능사입니까?

제가 오늘 정부 측 발표 등 답변하는 것을 죽 들어 보면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당사자들 입장에서 '우리는 열어 놓고 너희들 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관계 진전에 도움이 됩니까? 이를테면 문을 열어 놓고가 아니라 문을 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마치 어떤 우월한 위치에서 그냥 문을 열어 놓고 너희들 오면 받고 안 오면 말고 하는 식으로 얘기, 답변을 그렇게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 놓고가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 와서 그런 방안들을 보고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심리전'이라는 얘기가 아주 옛날부터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국방부장관, 거기 심리전의 전 자가 한자로 무슨 전 자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마음 심(心)' 자.

○이정현 위원 아니요, 전.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이요? '전쟁할 전(戰)' 자입니다.

○이정현 위원 '전쟁할 전'.

그러면 통일부장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심리전이 전쟁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것도 일종의……

○이정현 위원 이를테면 같은 것을 해도…… 예를 들어 우리가 라디오를 보내고 그쪽에 음악을 틀고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접근을 하고 또 생필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도 접근을 하고 하는 것은 효과는 그런 면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심리전이라는 용어를 서로 간에 공식적으로 다 써 가지고…… 아니, 전쟁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 전쟁을 한다는 말을 쓰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기대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공식적인 용어를 그렇게 쓰는데? 그런 부분도 좀 유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략도 목표도 없다. 대북정책은 미궁에서 뺑뺑뺑 맴돌고 있다. 대북정책이 있다면 옛날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우’라는 드라마 방영할 때 초등학생들이 전쟁놀이 하면서 ‘돌격 앞으로’ 하는 그 수준이다……”

한반도의 위기 그리고 남북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첫째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북이 전쟁해서 피해를 보는 건 누구겠습니까? 국민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50년, 100년 후퇴하고 또다시 돌아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되어야 됩니다.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됩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으르렁거려 가지고 도움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외국에서 투자 안 하지요, 국가 이미지 낮아지지요, 우리 국민들 불안하지요,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방부장관님, 한반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계속 강경 일변도로 가서는 안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는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군사대비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윤 위원 물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보는 튼튼히 해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렇지만 공격적으로 전쟁을 불사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박주선 위원장, 박선숙 간사와 사회교대)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는 공격적이 아닙니다.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도발에 대한 응징의 차원으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김재윤 위원 통일부장관님, 노태우 정부 때—1991년입니다—북한과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제3조에 보면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북전단 이렇게 막 보내면서 감정을 부추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 또 비방·중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북한이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비방·중상합니다.

그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늘, 매일 정도로 지금 비방·중상당하고 있습니다만……

○김재윤 위원 우리 파주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대북비방전단 중지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남북정상회담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원론적으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재윤 위원 실제 추진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윤 위원 왜 추진 안 하시지요? 남북정상회담은 그 시기도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이명박 정부도 좋은 거예요. 대통령도 좋고 국민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 일을 왜 안 하십니까? 이것 주무 장관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잘 갖춰져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대통령께서 통 큰 정치 해야 됩니다. 통 큰 대북정책 해야 됩니다.

남과 북이 형제 아닙니까? 형제가 이데올로기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분단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분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형제끼리 만나야지요. 그럴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께서 대통령께 건의하고 제안하고, 통일부장관이니까 그건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 남북정상회담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남북국회회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국회회담이 추진되면 뒷받침할 용의는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저희는 국회회담 경우는 역시 국회가 주체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 통일부로서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북쪽이 이것을 통전 차원에서 하는 흔적이 지금 너무나 많이 보인다 이 점만은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숙 김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나라당의 이철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철우 위원 경상북도 김천 출신입니다.

남북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토론하고 여야가 다르고 그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날수록 또 달라지고.

국방부장관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국방부장관 김관진 3개월 됐습니다.

○이철우 위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믿음직한 장관을 모셨다 이래서 굉장히 든든해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전방에 가서 '북한에서 공격 오면 묻지 말고 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철우 위원 그러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북한의 공격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없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래서 큰 착오가 있는 겁니다. 이용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에서 디도스, GPS…… 요새는 꼭 무기로 쏘는 것이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를 전부 교란시키고 있고 잘못하면 항공기가 떨어지고 KTX가 탈선하고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아직 공격받은 적이 없다'……

디도스 공격은 2009년 7월 7일 날 받은 이후에 2010년도 계속 공격을 받았고 이번 3월 4일 날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경고도 한 번 안 하고 그것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민간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디도스에 대한 경고는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루어졌고 디도스에 대한 군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철우 위원 아니, 군만…… 연평도 결과 군만 피해가 있었습니까? 공격이 오면 군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간이 피해가 있으면 군에서…… 북한에서 군에서 공격해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하는데, 물론 정부 부처에서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겠다 호언장담을 해 놓고 하나도 조치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방어태세도 되어 있지도 않고 '다음에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앉아서 우리끼리 협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바로 GPS라든가 디도스 공격을 하는 북한의 군에 대해서는 조준 사격을 하겠다는 그런 경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공격하는지?

○국방부장관 김관진 디도스 공격은 정확한 위치를 아직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철우 위원 GPS는?

○국방부장관 김관진 GPS는 북한이 했습니다.

○이철우 위원 아니, 북한이 했는데 정확한 지점이, 군이 했느냐 민간이 했느냐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군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철우 위원 그러면 군에서 했는데 왜 공격을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여러 가지 대응태세는 우리가 다 취했고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재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 장비까지 같이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는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철우 위원 우리가 작년에 해상사격 훈련한 무인정찰기가 교란전파로 해 가지고 정상 가동 못 한 적도 있지요? 그것 있습니다, 장관 취임하기 전에.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작년 을지연습 기간에 GPS 교란이 있었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저는 전쟁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준비를 했을 때 억

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대화를 자꾸 주장을 하는데 퍼주기식 해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대응을 하고 만약에 저쪽에서 공격이 오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공격을 하겠다는 말을 했으면 거기에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 말은 하고 뒤에 행동이 안 이어지느냐, 그것 온 국민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GPS 전파교란은 여러 가지 전자전 중의 하나인데 제4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물리적 파괴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철우 위원 아니, 전자전도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자전에 충분히 대비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대북방송을 우리가 단파방송을 주로 하고 있지요, 단파방송을?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민간에서 하는 것……

○이철우 위원 그래서 AM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해서 AM 주파수를 허가를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공개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그에 대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개성공단에 가 있는 그 업자들을 만나보니까 정부에서 전혀 조치가 없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부도날 지경에 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철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물론 충분히 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자기들이 기른, 특히 봉제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실력으로 길러 줬는데 외국에 가 버리니까, 중국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중국 기업체에 자기들이 일을 하는 것 많이 봤다 그래서 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숙 예, 말씀하세요.

○鄭玉任 委員 지금 외교부는 더 이상 답변할 분이 없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박선숙 지금 장관님은 가셨고, 장관님 대신……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전충렬 장관님 법사위 갔다 금방 돌아오실……

○위원장대리 박선숙 돌아오실 때까지 답변은 어느 분이 대신해 주시지요. 어느 분이 하실 수 있으세요? 아예 비워 놓으시는 건 적합하지 않고요.

(박선숙 간사, 박주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주선 지금 외교부장관 안 계셔서 그렇지요? 일방적은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회의 개최 초기에 양해를 했습니다. 법사위가 끝나는 대로 곧 오실 겁니다, 여기로.

지금 외교부 다른 실무자들 안 나오셨습니까?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전충렬 사항에 따라서 담당국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래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전충렬 예.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선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아, 아직 질의하신 것은 아니고?

그러면 정옥임 위원님 질의 순서신가요? 외교부장관 오시네요.

존경하는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玉任 委員 먼저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원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난번 연평도 포격 도발 이전입니다.

○鄭玉任 委員 정확하게 말하면 2010년 11월 23일 오전까지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런 걸로 알고……

○鄭玉任 委員 연평도 포격사태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23일 날 일어났습니다.

○鄭玉任 委員 같은 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바로 연평도 포격사태가 있었던 날 오전까지 대북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鄭玉任 委員 또한 작년에 남북 간 적십자 회담이 언제 예정되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鄭玉任 委員 언제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25일 날이었습니다.

○鄭玉任 委員 바로 맞습니다. 11월 2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어렵사리 여야가 초당적으로 연평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를 하면서 사과, 재발 방지 촉구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鄭玉任 委員 그런데 우리가 사과와 재발 방지 촉구 결의를 했지만 지난번에 군사회담에서 그 문제와 관련한 북한 입장이 어땠습니까,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은 천안함 문제와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들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鄭玉任 委員 북한과의 대화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바로 이렇게 도발, 박왕자 씨 사건을 포함해서 이렇게 도발을 하는데 그다음에 시간이 흐른 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대화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전례를 만드는 게 정부로서는 두려운 것 아닙니까? 도발하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대화하고……

그다음에 그 도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시지요?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

○鄭玉任 委員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이 핵국입니까, 비핵국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비핵국입니다.

○鄭玉任 委員 비핵국입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조약이나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어기면 그 조약이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효과 없습니다.

○鄭玉任 委員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에는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1992년에 우리가 북한과 맺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북한이 이미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맞지요? 인정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1992년에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할 때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단언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당시에 외교적으로 뒤에서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지원'으로 표현을 하셨지만 모든 전공 서적이라든지 관계 서적을 보고 자료를 보면 미국의 압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압박해서 우리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했고, 전술핵무기 1991년에 철수된 것입니다.

한국,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는 비핵화입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입니다마는 지금 북한의 이런 핵 위협 앞에 있기 때문에 억지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 외교적으로 할 말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회 일각에서 전술핵무기 재반입이 나왔다는 그 취지는 이해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다시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에 심리전부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에도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중국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어느 나라든 다……

○鄭玉任 委員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런데 그 심리전에 대해서 공개한 것처럼 보였던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물론 공개하지 않았지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그것까지도 주의를 했어야 됐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SCM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서 항상 문서로 명기했다고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鄭玉任 委員 얼마 전에 구제역 살처분 때 군을 동원할 때 장관의 고민이 상당히 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의 걱정 때문이었지요?

그러면 가상적으로 만에 하나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 그러면 미국의 부모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도발한다 해서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지원하라고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쉽게 보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평화를 지켜야만 바로 남북관계 발전이 제대로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정옥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가 되겠네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숙 위원 오늘 질문답변 중에 통일부장관께서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돼서 진행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답변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통일부장관께서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박선숙 위원 통일부장관께서 모르는 어떤 것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박선숙 위원 '아는 한 없다'가 맞지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정확하실 겁니다.

통일부와 국방부와 청와대 혹은 청와대를 제외하더라도 남북관계, 혹은 남북 안보관계 장관들이 모여서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올해?

통일부장관 먼저 답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선숙 위원 아니, 협의하신 적이 있느냐…… 제가 내용을 여쭌 게 아니고요.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런 협의를 합니다.

○박선숙 위원 예?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중에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답변하시기 좋게 포괄적으로 드렸어요. 대북전단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논의도 합니다.

○박선숙 위원 국방부장관님,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 협의과정에서 청와대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민간 대북전단……

○박선숙 위원 아니, 특정하지 말고 답변하세요. 그게 아마 나중에 좋으실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특별하게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박선숙 위원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단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불만을 터트렸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 내용은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박선숙 위원 청와대로부터 그와 관련된 어떤, 언론보도 이외의 전달받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없었습니다.

○박선숙 위원 또 하나, 통일부장관께요.

연평도 이전에는 민간에서 보내는 대북전단에 관해서 좀 자제를 요청했지만 연평도 이후에는 특별히 자제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연평도가 아니라요, 5·24 조치……

○박선숙 위원 5·24 이후에, 맞습니다. '5·24 이후에는 민간에서 보내는 것에 관해서 자제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박선숙 위원 내일 당장 보내게 되어 있지요? 내일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 보내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보고 한번 받아 보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박선숙 위원 일단 어떤지 상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국방부장관께 여쭤 볼게요.

전단을 계속 보내면 조준사격 하겠다는 북한의 발표가 엄포입니까? 그저 말로만 하는 엄포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는 그걸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포성일수도 있고 실제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한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하신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

○박선숙 위원 그런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하신 적 있느냐고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박선숙 위원 내일 당장 민간인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세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해도 좋다는 것처럼…… 정부가 해도 무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한 것처럼 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 정부에 있습니다. 점검하십시오.

지금 31명의 송환 문제에 관해서 여쭤 볼게요.

답변하셨는데요. 숫자가 많은 걸 말씀하셨는데, 2008년 2월 달에 22명이 서해에 왔을 때 얼마 만에 돌려보냈는지 아세요? 2008년 2월 8일 날 22명이 왔어요, 고무보트 2척을 포함해서. 당일 돌려보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지난해 12월 이전까지는 숫자가 얼마가 됐던 간에 하루 이틀 삼일 걸렸어요. 최대한 많이 걸린 게 7일입니다. 그 7일이 작년 9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달은 4명이 울릉도로 왔다가 1명은 돌아가고 3명은 귀순했습니다. 그때 1명은 돌아가고 3명 귀순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국방부장관께 여쭤 볼게요.

합참의 공보실장이란 분이 바로 2월 7일 당일 '31명 가운데는 귀순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숙 위원 기명으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31명이 넘어오자마자 바로 '귀순의사가 모두, 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우리 정부 당국자가 한 말이에요. 그래 놓고 시간을 아주 이례적으로, 작년 12월 이후에 지금 시간을 많이 끌고 있어요, 30일 이상. 시간을 많이 끌면서 그중에 4명이 귀순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니 지금의 이 상황이, 이 건이 빌미가 되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승자박을 했습니다. 국방부하고 통일부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충분히 협의되지 않고 있는 것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은 관례에 따라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영 위원 위원장님 인상은 넉넉하신데 시간 인심이 너무 박하시네요.

국방부장관님, GPS 교란에 우리 군 당국의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박선영 위원 그런데 피해가 없다고 앞으로도 없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건 아닙니다.

○박선영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 국방부에서는 전자전 도발에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앞으로 보안코드가 내장된 군사용 GPS를 점진적으로 개척·개선해 나가고, 경고를 충분한 시간 내에 하면서 상용 GPS를 달고 있는 것도 대안장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장관님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지금 하신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동시에 지금 우리 군에서는 최첨단 장비로 계속 무장을 하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앞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박선영 위원 그런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듯이 또 이라크 사태에서 보듯이 현대전이 반드시, 첨단형 무기가 누가 많은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재래식, 아주 초보적인 무기에 의해서 패전을 하는 이런 경우

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런 것을 전제하더라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에 하나 우리가 GPS 교란 등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정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다른 제도적 장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재래식 장비를 보완용으로 맞춰 놓는다든지, 마치 우리가 불이 나갈 것에 대비해서 집에서 랜턴이나 촛불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준비가 국방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여러 가지 올바른 지적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국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최신식 장비만이 아니라 재래식 장비도 항상 보완대책으로 함께 우리 국방부가 준비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지금 귀순의사를 밝힌 31명 중의 4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님들조차도 그 4명을 왜 공개를 안 하느냐, 대질신문도 하게 해 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외교부장관님 국제법상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이런 경우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통상적으로는 유엔의 기구가 개입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국제법상으로 보면 본인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사람을 내몰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특히 망명을 희망, 지금 귀순이라고 하는 국제법상으로 보면 망명입니다. 망명을 희망하는 사람을 공포스럽고 협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악한 환경에 내모는 것은, 이것은 비인도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UNHCR이나 이런 국제법적인 기구 또 제3자나 제3국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와서 확인한 후에 그것을 통보해 주는 방식을 택해야지, 북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 4명을 내보내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상당히 위험하고 비인도적이고 반인간적이고 비국제법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정부가 표명해야 하실 것으로 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알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외교부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김재윤 위원 북한이 외국입니까, 우리나라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우리 헌법상에는 우리나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렇지요. 헌법상에는 우리나라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를 갈 때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유엔에는 같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북한하고의 관계가 바로, 우리나라이면서도 외국인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재윤 위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는 외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김재윤 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통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외교에 있어서는 그 어떤 부처보다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북관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외교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외교부의 대북한 정책이 보다 유연하고 융통성 있고, 그리고 아까 외교부가 궁극적으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양면성을 잘 고려하면서 외교정책을 펼쳐서 남북 간에 조속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통일부장관님!

결국 우리는 통일을 이뤄야 됩니다. 남과 북은 하나가 돼야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통일이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를 잘 해야 되겠지요.

통일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이 되면 1차 결과 보고가 나올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반기 안에 저희

정부안을 만들겠습니다. 그 가운데 국회와도 아주 긴밀히 상의를 해서, 아마 좋은 안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좌충우돌 우왕좌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통일을 준비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그건 높게 평가합니다. 어쨌든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통일에 대비한, 예산이 있고 재원이 있어야 통일도 제대로 되고 혼란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일에 대비한 재정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통일세 말고?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고요. 그걸 아주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저는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통일에 대비해야 되고 또 남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께서 각별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玉任 委員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언급이 된 것인데요 이명박 정부 취임 바로 직전에 북한의 어선이 우리 쪽으로 내려왔다가 바로 당일 갔습니다. 당일 갔는데, 지금 탈북자들이 와서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자기가 귀순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쪽으로 배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북한에서 조사를 포함해서 엄청난 고초를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과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인권법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탈북자들에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의향이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마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鄭玉任 委員 이것은 남북관계 내지는 정치적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인도주의적인 보편적 가치에서 접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에 대해서도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정부가 하시라도 그리고 단 한 마디라도 귀순을 독려하거나 또는 귀순을 설득한 사실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鄭玉任 委員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실이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사실이 없습니다.

○鄭玉任 委員 없으시면 바로 이미 박선영 위원이 제안을 했듯이 이거는 국제사회 내지는 국제법규에 의거해 가지고 철저히 인권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농축 프로그램이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농축 프로그램이 있다고 스스로 실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을 시키다가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우라늄 프로그램은 우리가 과학적 근거로 볼 때 대충 그 프로그램을 가동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추정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 뭐 기간을 추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1, 2년 사이에 바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鄭玉任 委員 다시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가 강경책을 써서 홧김에 시작한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런 말씀입니다.

○鄭玉任 委員 다시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팽배했던 천안함 공방, 특히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종식된 게 사실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국방부가 국가의 영토수호 임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공보하고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께 알리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업무보고의 4쪽에 보면 '서북도서 생존성 향상을 위한 요새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 요새화는 대충 되어 있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민간인 요새화가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정부에서 민간인이 대피할 지역은 추가적으로 건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군 요새화는 서로 연계를 시키고자 합니다.

○鄭玉任 委員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 4, 5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鄭玉任 委員 4, 5년이면 민간인 요새화까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대피호는 완전히 구성이 됩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심리전과 관련해 가지고 심리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뭐 여기서 공개할 수도 없고 공식화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적어도 북한 인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내용이 아닌, 다시 말씀드리면 2004년 이전에 어떤 사실을 전달해 주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도 국제법상 문제가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심리전의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라디오, TV도 다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알릴 수가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심리전'이라 하니까 대북 비방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오늘 뉴스를 보니까 보수단체 사무국장의 어머니가 피살됐다라는,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가 늦어진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테러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에서는 파악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지금 그 뉴스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정옥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용경 위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위원입니다.

김재윤 위원께서 통일세 얘기를 하셨는데, 통일이 다가왔으면 좋겠고 다 좋은데 통일세를 우리가…… 북한이 꺼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또 꺼낼 처지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꺼내면 북한은 당연히 긴장하게 되고 기분 나빠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뭐 글쎄, 이제 통일세 문제는……

○이용경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뭐 그건 제가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이용경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북한은 기분 나빠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통일세 얘기를 꺼내더라도 좀 분위기가 좋을 때 꺼내면 '우리가 가는 방향이 지금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말 같이 해 보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하필이면 이렇게 서로가 긴장된 상황에서 통일세 얘기를 꺼내 가지고 저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남북통일이라는 것이 무력으로 일방적으로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어떠한 합의를 이뤄서 나가는 그러한 상호 호혜적인 이러한 상황이라 그러면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신뢰가 있고 그러한 분위기가 되면 앞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자원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건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보지만 굳이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데서 통일세를 꺼내 가지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그게 제 생각이고. 이 상호 신뢰가 아무튼 중요하고 아까도 또 제가 한 번 말씀했지만 역지사지도 중요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뢰를 빌드업 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신뢰도 중요하고 국내외의 신뢰도 중요하고……

지금 천안함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도 정부의 신뢰가 많이 깨졌다고 봐요. 이거를 '북한이 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90% 북한이 한 거다. 10%는 우리가 사실 입증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100% 북한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건 다르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얘기하기를 바라서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국민이 100%라면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정부의 이러한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저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아니 '90%, 95% 분명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5%는 확증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진솔하게 국민들의 설득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뭐 천안함을 누가 일으켰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경 위원 아니 제 질문은 소통방식에 대한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이에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판단하기로는 천안함은 100% 북한의 소행으로 모든 증거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우리 이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이용경 위원 예.

○위원장 박주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영선·김재윤·이철우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질의 중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회의 중에 이사철·박선숙 양 간사들께서 남북관계발전특위 정례화에 관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4월·6월 임시국회 시에 특위 회의를 반드시 개최하고 3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의 특위의 정기적 회의체계 확립을 합의하셨고, 남북관계 급변 시 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긴급현안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연중 항시 개최 가능하도록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상황 발생 시 긴급현안보고 회의체계 확립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학진 위원·박선영 위원·안홍준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 위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들이 계셨습니다.

인도적·비이념적·비정치적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대북지원사업은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안된 주요사업의 내용은 북한지역 녹화사업, 북한의 영유아 지원사업, 백두산화산 연구 관련 사업과 이견이 있지만 남북국회회담성사지원을위한소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종류의 지원·교류사업이 가능한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소위원회 설치 여부 및 설치 방안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安鴻俊 委員 위원장님, 영유아 지원사업에서 의약품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영유아만 있고요.

○위원장 박주선 여기 의약품 등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安鴻俊 委員 영유아에 산모까지 넣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정부 정책에 적극 수용하여 남북문제 해결에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의사일정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련 관계자들을 참석시켜서 의견 진술 기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김 동 철　김 성 수　김 세 연　김 재 윤

김효재 문학진 박선숙 박선영
박주선 송영선 신지호 신학용
안홍준 이사철 이용경 이인기
이정현 이철우 정옥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 석 호
전 문 위 원 권 기 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통일부장관 현 인 택
외교통상부
장 관 김 성 환
기획관리실장 전 충 렬
국방부장관 김 관 진